논어 9편 자한 19장 · 원문·풀이

# 子曰：「譬如爲山，未成一簣，止，吾止也！譬如平地，雖覆一簣，進，吾往也！」

독음 · 자왈 비여위산 미성일궤 지 오지야 비여평지 수복일궤 진 오왕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산을 쌓다가 마지막 한 삼태기를 남기고 멈추는 것도, 처음 한 삼태기를 붓고 나아가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譬 비유할 비 비 / 如 같을 여 여

爲 할 위 / 山 뫼 산 산 / 未 아닐 미 미 / 成 이룰 성 성

一 한 일 일 / 簣 삼태기 궤 / 止 발 지 지 / 吾 자기 오 오

也 어조사 야 / 平 평탄할 평 평 / 地 땅 지 지 / 雖 비록 수 수

覆 뒤집힐 복 복 / 進 나아갈 진 진 / 往 갈 왕 왕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